

동물 실험 옹호 논증의 논리적 분석*

최 훈**

주제분류 윤리학, 논리학, 응용 윤리

주요어 동물 실험, 논증, 오류, 동물 실험 옹호 논증, 유사성, 이익, 대안 부재

요약문

이 논문은 동물 실험을 둘러싼 논쟁에서 동물 실험 옹호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논증들을 사용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수사적 방법을 구사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다. 동물 실험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들이 참인 것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논증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기초적인 논리학 수업 시간에 다루어지는 논증과 오류 등이 제시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동물 실험을 옹호하는 논증은 전제들이 참이 아닌 건전하지 못한 논증이거나 전제들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결론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논증이라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 이 논문은 제2회 과학학연합학술대회(2013년 9월 28일, 한양대학교)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심사위원들의 유익한 의견 덕분에 여러 곳을 수정할 수 있었는데, 심사에 감사드린다.

** 강원대학교

1. 머리말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육식을 반대한다. 동물 권리를 주장하는 이론, 곧 동물 권리론은 육식을 하기 위한 사육과 도살은 동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리주의에 기반을 둔 동물 해방론에서는 육식에서 생기는 인간의 이익과 피해 받는 동물의 손해를 저울질을 했을 때 동물의 손해가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¹⁾ 육식에서 얻는 인간의 입맛은 동물의 고통에 비해 아주 사소한 것이고 육식에서 생기는 영양은 채식으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 그러나 동물 실험에 대해서는 동물 권리론은 여전히 반대하지만, 동물 해방론은 제한적이거나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동물 실험에서 얻는 인간의 이익이 동물의 이익보다 크고 중요하다면 그런 관행은 옹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동물 실험을 둘러싼 논쟁에서 옹호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논증들을 사용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수사적 방법을 구사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다.²⁾ 동물 실험 찬반 논증 중 특히 동물 실험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들이 참인 것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논증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기초적인 논리학 수업 시간에 다루어지는 논증과 오류 등이 제시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동물 실험을 옹호하는 논증은 전제들이 참이 아닌 건전하지 못한 논증이거나 전제들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결론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논증이라는

1) 동물 권리론은 Regan(2004)가, 동물 해방론은 Singer(2012)가 대표한다. 동물 권리론과 동물 해방론의 주장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2) 이 논문에서 ‘옹호론’과 ‘반대론’은 동물 실험 옹호론과 동물 실험 반대론을 가리킨다. 한편 Nobis(2012)도 이 논문의 목적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 실험 논쟁을 분석하는데, 그 전체 분석 방법은 이 논문과 다르다.

것을 보여 줄 것이다.

2. 동물 실험 옹호 논증과 반대 논증

먼저 동물 실험(animal experimentation)이라는 용어부터 검토해 보자. 19세기까지는 동물 실험 대신에 ‘생체 해부’(vivisection)라는 용어가 널리 쓰였다. 그리고 지금도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동물 실험 논쟁을 ‘생체 해부 찬반 논쟁’이라고 일컫고 스스로를 생체 해부 반대 진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The British Union for the Abolition of Vivisection나 The National Anti Vivisection Society와 같은 단체 이름이 그런 예이다. ‘생체 해부’라는 잔인해 보이는 **감정적인 용어**³⁾를 사용함으로써 논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대신에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라는 용어를 쓰거나 ‘원자력 발전소’ 대신에 ‘핵 발전소’, ‘원전 수거물’ 대신에 ‘핵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쓰는 예에서도 찾을 수 있다. 반면에 동물 실험을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Americans for Medical Progress, Coalition for Medical Progress, Research Defence Society에서처럼 자신들의 연구가 의학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한다. 동물 실험을 옹호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중립적인 용어 대신 자신에게 유리한 이미지가 내포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생체 해부는 그 내포가 갖는 중립성이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현재 논쟁에서 그 외연도 정확하지 않다. 동물을 이용한 연구에는 생체 해부뿐만 아니라 감금된 상태에서의 관찰, 처치 연습, 과학 전시 프로젝트 등도 포함되므로 ‘생체 해부’는 물론이고 ‘동물 실험’도 좁은 대상밖에 가리키지 못한다. 그래서 ‘동물 연구’(animal research)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고 실제로도 널리 쓰인다.⁴⁾ 가끔 ‘생체 연구’라는 용어도

3) 감정적 용어에 대해서는 코퍼·코헨(2000, 103쪽 이하)을 보라.

4) DeGrazia(2002, 101쪽) 참조.

사용되는데 동물 연구는 생체를 이용해서 진행되므로 ‘생체’가 주는 감정적인 이미지를 제외한다면 지시 외연은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용어를 둘러싸고 이와 같은 복잡한 내막이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동물 실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동물 실험 옹호 논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⁵⁾

- (1)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다. (유사성 전제)
- (2)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동물 실험은 꼭 필요하다. (이익 전제)
- (3) 확실하고 믿을 만한 동물 실험의 대안은 없다. (대안 부재 전제)
- (4) 따라서 동물 실험은 정당화된다.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없다고 생각하는 쪽은 물론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도 가령 동물 해방론 같은 경우는 위와 같은 전제가 만족된다는 조건에서 동물 실험을 옹호할 수 있다. 전제가 되는 세 가지 주장이 분명히 참이라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생기는 해악보다 이익이 훨씬 크므로 동물 실험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질병이 주는 고통이 아주 크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할 때, 실험에서 동물에게 주는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고통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한다면 동물 실험은 정당화된다. 그러나 그런 결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각 진술들이 옳다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 곧 정말로 인간과 실험동물이 유사하고, 동물 실험이 정말로 인간에게 이익을 주고, 그리고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이 정말로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 검토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5) 동물 실험 옹호 논증은 Cohen&Regan(2001)에서 Cohen이 집필한 “In Defense of the Use of Animals”와 “Reply to Tom Regan”과, 김명식(2007), 추정완·최경석·권복규(2007) 등에서 전개되었다. 이 논문의 동물 실험 옹호 논증은 그것들을 바탕으로 필자가 구성한 것이다.

반면에 동물 권리론자들은 세 가지 전제들이 설령 옳다고 하더라도 (4)와 같은 결론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고, 다시 말해서 위 전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 비판은 **반대 사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위 논증의 전제들을 모두 만족하지만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반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위 논증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1)~(3)의 ‘동물’의 자리에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이 그 반대 사례이다. 그러면 (1)~(3)의 진술은 의문의 여지없이 참이다. 인간은 인간에게 생물학적으로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동일하고,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인간 실험은 꼭 필요하며, 인간 실험만큼 확실하고 믿을 만한 실험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정당화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는 없다.

이러한 반대 사례가 성립하는 까닭은 인간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치나 관동군의 인간 생체 실험이 유용한 의학적인 지식을 낳았을지 모르지만, 그 실험은 인간을 과학 연구의 도구로 삼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 기본적 권리를 갖는 인간과 그렇지 못한 동물을 유비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동물이 기본적 권리를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는 것 자체가 동물권 논쟁에서 중요한 논점이지만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므로 여기서는 거기에 개입하지 말자. 다만 여기서는 옹호론자들이 동물은 기본적 권리가 없다고 단적으로 가정하고서 위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저지른다는 점만 지적하도록 하자. 물론 반대론자들도 별도의 근거 제시 없이 동물에게는 기본적 권리가 있으므로 반대 사례 방법에 의해 동물 실험 옹호 논증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도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다.

3. 동물 실험 옹호 주장의 논리적·수사적 전략들

이제 동물 실험 옹호 주장을 하나씩 검토해 보자. 그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옹호론자와 반대론자가 어떤 논리적·수사적 전략들을 구사하는지 드러날 것이다.

(1) [유사성 전제]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다

동물 실험 옹호자들은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의 유사성에 의존하는 **유비 논증**을 이용한다. 동물 실험에서 많이 사용되는 침팬지나 미니 피그나 마우스는 인간처럼 척추를 가지고 있으며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 그래서 그 동물들로부터 얻은 실험 결과를 인간으로 일반화하는 것이다. 유비 논증은 비슷한 점이 많을수록 개연성이 높아진다. 실험동물로 쓰이는 포유류들은 인간과 생물학적인 공통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물의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반응을 인간에게 안전하게 일반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사성 전제는 동물 실험의 방법론적 또는 인식론적 정당성을 옹호하는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윤리적 정당성을 옹호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같은 인간끼리 유사성이 가장 높으므로 인간에 대해 실험을 했을 때 실험에 따른 추론의 개연성이 가장 높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 대한 실험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까닭을 알 수 있다. 동물 실험의 윤리적 정당성은 방법론적 정당성과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동물 실험 옹호 논증의 결론 (4)에서 ‘정당화’는 윤리적 정당화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 실험은 실험을 담당하는 과학자가 가장 권위자이므로 동물 실험의 정당성은 과학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고, 결론의 ‘정당화’는 윤리적 정당성인데 전제의 ‘정당화’는 방법론

적 정당성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애매어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다.

유사성 전제에서 동물 실험이 정당화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윤리적 논증이지만 유사성 전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는 것은 과학적 작업이다.⁶⁾ 그 작업은 이 논문의 목적과 역량을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유사성 전제를 이용하는 동물 실험 옹호자들이 논리적으로 **딜레마**에 빠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동물은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든가 유사하지 않든가 할 것이다. 먼저 옹호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인간과 동물은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일반화할 만큼 유사하지 않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유사성 전제는 거짓이 된다. 이번에는 유사성 전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것은 동물 실험을 하지 말아야 할 윤리적인 이유가 된다. 인간과 동물이 생물학적인 차이가 없는데도 인간을 대상으로 삼는 실험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동물 실험만은 허용하는 것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이상 비슷한 경우는 비슷하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윤리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결국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든 하지 않든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에 근거해서 동물 실험을 옹호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물론 옹호론자 입장에서는 딜레마의 한 뿔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딜레마를 빠져나갈 수 있다. 곧 인간과 동물이 생물학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윤리적으로는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위해서는 역시 동물이 기본적인 권리를 갖느냐, 갖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갖느냐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⁷⁾

6) 유사성 논증이 거짓이라는 과학적 주장은 그릭·그릭(2005)과 그릭·그릭(2006)을 보라. 그리고 추정완·최경석·권복규(2007, 48쪽)에서는 비소가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역학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 있지만 동물에게는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7) 여기서 기본적 권리는 도덕적 지위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찾기 힘들다. 그래서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직접적으로 갖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는 갖는다는 이론들이 등장하게 된다. 최훈(2013)은 그런 간접적 도덕적 지위 이론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그러면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직접적으로 갖든지 아니면 전혀 가질 수 없는데, 후

한편 옹호론자가 유사성 논증을 이용할 때 이중 잣대(double standard)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인간과 동물, 특히 포유류는 기능적·설명적 차원에서는 많은 유사한 점을 보인다. 척추를 비롯한 골절이 하는 기능이나 피의 순환, 호흡 등의 기능은 비슷하다. 그러나 그런 기능을 실제로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다 똑같지는 않다. 예컨대 고양이와 쥐와 돼지와 인간은 모두 폐놀을 대사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그 기능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종마다 다 다르다.⁸⁾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모양의 코르크 따개는 코르크를 탄다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과 재료는 다양하다. 각 종의 약품 반응의 메커니즘은 바로 그 인과적 메커니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기능적인 차원의 유사성에만 주목한다. 한편 그런 주목이 일관되게 진행되지도 않는다. 인간과 동물은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아주 유사한데 막상 그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 것이다. 고통을 느끼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다를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불쾌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신경 말단의 자극에서 잠재적으로 조직을 손상시키는 데 관련되는 정보를 중추 신경계로 전달하여 처리하는 유해 수용과 불쾌함을 느끼는 현상적 감각은 종마다 같은데도 그것은 무시한다. 요약하면 인간과 동물은 그 기능적 메커니즘은 유사하지만 인과적 메커니즘은 다르다. 그러나 옹호론자는 기능적 메커니즘의 유사성에만 주목하고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에 대해서는 무시한다. 더구나 기능적 메커니즘에 일관되게 주목하지도 않는다.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메커니즘이 유사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능적 메커니즘인데, 정작 중요한 이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주목하고 불리할 때는 주목하지 않는 이중 잣대를 사용하는 것이다.

자는 상식적으로 성립하기 힘들므로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직접 갖는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

- 8) 기능적·설명적 차원과 인과적 메커니즘의 구분에 대해서는 최훈(2004)을 보라. 폐놀 분해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LaFollette&Shanks(1996), 136쪽을 보라.

(2) [이익 전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동물 실험은 꼭 필요하다

머리말에서 육식은 윤리적으로 옹호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론적으로 옹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의식이 없는 동물을 공장식 사육이 아니라 자연과 최대한 비슷한 상태에서 고통 없이 기르고 고통 없이 도살한다면 동물의 고통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물 실험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도 그런 가능성은 없다. 동물 실험은 스트레스 실험이나 독성 실험 등 고통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인 실험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동물 실험이 옹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주는 의학적 이익 때문이다. 미국 의학 협회는 『의생명 연구에서 동물의 사용』이라는 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세기 의학에서 항생제와 백신에서 항우울제와 장기 이식까지 사실상 거의 모든 진보는 실험실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동물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런 실험의 결과로 수많은 전염병—천연두, 소아마비, 홍역—을 박멸하고 억제하게 되었고 인명을 구조하는 수많은 기술—수혈, 화상 치료, 심장 절개 및 뇌 수술—이 발전하게 되었다.⁹⁾

동물에는 도덕적 지위가 없음을 열렬하게 주장하며 동물 실험을 적극 옹호하는 현대의 철학자 코헨은 1948년에 어린이 캠프에서 보조 교사를 할 때 소아마비에 걸릴까 봐 어린이나 학부모 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를 회상한다.¹⁰⁾ 1952년에는 미국에서 5만 8천 명 이상이 소아마비에 걸렸고 그 중 수천 명이 죽었으며 수천 명은 철제 호흡 보조 장치라는 끔찍한 기계에 평생 의존해야 했음을 지적한다. 그러던 것이 미시간 대학교 의료 센터에서 소아마비 백신이 성공을 거둔 이후, 이제는 전 세

9) AMA(1992), 11쪽.

10) Cohen&Regan(2001), 11-2쪽.

계에서 소아마비는 거의 박멸되었다. 동물 실험 덕분에 무서운 질병은 없어지고 수명은 연장되었으며 삶의 질은 개선된 것이다. 코헨은 “의학에서의 놀라운 진보와 인간에게 소중한 수많은 업적들은 실험실에서 동물을 사용한 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것은 거기에 참여한 동물 생명의 손실을 훨씬 능가한다.”라고 말한다. 동물 실험이 없었다면 의학의 발전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물 실험을 옹호하는 주장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동물 실험 덕분에 의학이 발전하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대단히 중요한 이익이 생겼다는 것이다. 옹호자들은 동물 실험이 의학의 발전을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조건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동물 실험이 없었다면 의학의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동물 실험이 없다면 새로운 신약이나 치료 기술은 개발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가 낭포성 섬유증에 걸렸습니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죽을 거예요. 죽게 내버려 뒀야 하나요?”¹¹⁾ “아이나 아니면 동물이나?”라는 외침은 동물 실험을 하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이 동물 실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동물 실험은 동물에게 직접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호소력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익 전제 때문이다. 그 호소력은 옹호론자들의 몇 가지 설득 전략 덕분에 나온다. 첫째, 그들은 감정, 그 중 공포심에 호소하고 있다. 소아마비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상기시킴으로써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 **공포심에 호소하는 논증**은 금연, 에이즈 예방, 음전 운전 방지, 안전 운전 계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광고에서 널리 쓰이는데, 주의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나 폐해를 보여줌으로써 소기의 주장을 전달하려는 논증 방법이다. 오키프(D. O'Keefe)의 이중 설득 과정 모형(dual process model of persuasion)에 따르면 공들임의 정도에 따라서 설득이 작동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11) Perlo(2003), 51쪽.

있는데, 이를 동물 실험에 적용하면 동물 실험을 옹호하는 근거를 하나 하나 제시하는 방법과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위험을 한 눈에 보여주는 방법이 그것이다. 전자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황들을 고려하고 저울질해야 하므로 굉장히 복잡하고 공이 많이 드는 일이다.¹²⁾ 반면에 “우리 아이가 낭포성 섬유증에 걸렸습니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죽을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하나요?”와 같은 외침은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위험스러운 모습을 단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과정을 간단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둘째,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옹호론은 이익 전제를 제시함으로써 반대쪽의 위선 또는 비일관성을 드러내고 있다. 육식이나 동물을 이용한 오락의 비윤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육식을 하지 않고 동물을 이용한 오락을 즐기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주장과 실천을 일치시킨다. 그러면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론과 행동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을 통해 개발된 약품을 복용하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반대론자들도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받는 등 ‘의학에서의 놀라운 진보’의 세례를 받을 것이므로 그들의 주장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이익 전제에 숨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주장에서 비일관성을 지적하는 논증 방법은 **피장파장 논법**(the tu quoque)이라고 부르는데, 상대방의 주장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장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을 공격함으로써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낸다.¹³⁾

셋째, 이익 전제는 **선언적 삼단 논법**을 사용하고 있다. 선언적 삼단 논

12) 이중 설득 과정 모형과 공포심에의 호소 논증은 최훈(2012), 6장을 보라. 거기에서는 공포심에의 호소 논증이 올바른 논증인 경우와 오류 논증인 경우로 평가하였는데, 여기서 옹호론자의 논증을 평가하지는 않았다.

13) 피장파장 논법에 대해서는 최훈(2012), 4장을 보라. 거기에서는 이 논법이 올바른 논증인 경우와 오류 논증인 경우로 평가하였는데, 여기서 옹호론자의 피장파장 논법을 평가하지는 않았다. Regan(2012)는 동물 실험 논쟁에서 이 논법에 대해 어떤 식의 답변들이 가능한지를, 위선을 인정하면서 답변하는 방식과 위선을 부정하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법은 “P 또는 Q이다. Q가 아니다. 따라서 P이다.”와 같은 형식을 띠는데, “아이나 아니면 동물이냐?”는 “아이와 동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동물을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아이를 선택해야 한다.”가 생략된 논증이다. 위에서 말한 동정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약한 아이와 동물을 선택지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동물을 포기하고 연약한 아이를 선택할 것이다. 이익 전제를 선언적 삼단 논법 형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동물의 권리를 포기하든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해야 한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동물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동물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은 곧 동물 실험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선언적 삼단 논법이 타당한 논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P 또는 Q이다.”라는 첫 번째 전제에서 P 또는 Q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가정이 성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딜레마(혹백 논리)**에 빠질 위험이 있다. P 또는 Q 외의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선언적 삼단 논법을 제시하는 것을 거짓 딜레마라고 부른다. P 또는 Q 외의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Q가 아니다.”라는 두 번째 전제가 성립한다고 해서 “P이다.”라는 결론이 반드시 도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 딜레마는 분명히 잘못된 논증 방식이다.¹⁴⁾ 따라서 선언적 삼단 논법 형식의 이익 전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옹호론자들은 그런 입증을 한다. 세 번째 전제인 대안 부재 전제가 그것이다.

이익 전제는 옹호론자의 가장 강력한 전제이므로 좀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초 논리학에서 흔히 권장되는 논증 분석 방법으로 **숨은 전**

14) 선언적 삼단 논법과 거짓 딜레마에 대해서는 최훈(2003), 18장을 보라.

제 찾기가 있는데, 이익 전제에도 그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동물 실험은 꼭 필요하다.”라는 이익 전제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숨어 있다고 생각된다.

(숨은 전제 1) 동물 실험은 인간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나 동물 실험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거론되는 탈리도마이드 사례¹⁵⁾처럼 인간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동물 실험도 있으므로 위 전제는 전칭 양화사가 생략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다음과 같이 특칭 양화사가 수식된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숨은 전제 2) 어떤 동물 실험은 인간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나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동물 실험이라고 해서 모두 윤리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육식이 건강이나 환경 측면에서 인간에게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육식이 인간에게 주는 유일한 이익은 고기를 씹을 때 느끼는 입맛이다. 이 입맛은 육식을 하기 위해 동물에게 주는 고통을 고려할 때 사소한 것이므로 육식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동물 권리론자나 동물 해방론자 모두 주장한다. 만약 육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가령 이누이트—에게는 육식이 사소하지 않은 이익이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동물 실험도 설령 인간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소한 이익이라고 할 때는 정당화

15) 아침에 발생하는 메스꺼움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약인 탈리도마이드는 1950년대 독일에서 동물 실험을 거쳐 시판되었으나 1962년에 리콜되기 전까지 이 약을 복용한 산모들에서 1만여 명의 신생아들이 불구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 약으로 인한 선천성 기형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하자 과학자들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재현되는지 실험해 보았는데, 화이트 뉴질랜드 토끼는 인간에게 투여된 분량의 25~300배를 투여하고 난 후에, 원숭이는 10배를 투여한 후에 기형 새끼를 출산했다. 그릭·그릭(2005), 66-71쪽, 그릭·그릭(2006), 172-3쪽을 보라.

될 수 없다. 화장품, 식용 색소, 바다 광택제와 같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동물을 희생시켜서 얻는 이익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 아니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동물의 고통과 비교했을 때 아주 사소한 것이다. 또 “태어나면서부터 가혹하게 지속적으로 격리시키면 두려움이라는 사회적·정서적 상태에 빠진다.”처럼 굳이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거나 이미 확립된 사실을 재현하기 위한 동물 실험도 여기에 해당한다.¹⁶⁾ 그런 실험들은 그럴듯한 과학 용어로 포장하고 있지만 인간이나 동물의 이익을 증진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일부 연구자의 자기만족과 연구비 유지를 위해서 진행된다. 이것은 동물이 받는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아주 사소한 것이다. 따라서 숨은 전제 2는 다시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숨은 전제 3) 어떤 동물 실험은 인간에게 사소하지 않은 이익이 된다.

그러나 이 숨은 전제만 가지고 옹호론자들이 원하는 결론이 도출될 것 같지는 않다. 인간에게 사소하지 않은 이익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동물에게 주는 고통이 그것을 상쇄할 정도로 크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사소하지 않은 이익과 동물의 상당한 고통을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에 주의하면서 비교해야 한다.¹⁷⁾

첫째, 인간이 받는 이익이 상당하더라도 지금 당장 수행하는 실험에서 그 이익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며 일련의 실험들을 통해 결과가 산출된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마릿수의 동물이 희생될 수 있는데 그것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도덕적 가치가 작더라도 그 마릿수가 많으면 큰 도

16) 싱어(2012)의 2장은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 나열된다. 인간의 사소한 이익과 동물의 상당한 고통과의 비교를 통한 동물 실험의 자세한 논의는 최훈(2009)를 보라.

17) 이 비교는 최훈(2009)와 LaFollette&Shanks(1996)에 일부 제시되어 있는 것을 정교화한 것이다.

덕적 가치를 능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 실험 옹호자들은 성공한 동물 실험의 사례를 근거로 이익 전제를 옹호한다. 실제로 동물 실험을 통해 수많은 질병을 퇴치하고 치료법을 개발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 실험의 역사에는 그런 성공 못지않게 수많은 실패의 사례들이 존재한다. 다만 성공한 사례만 기억하는 인간의 선택적인 인지적 특성상 실패의 사례는 기억되지 못하는 것뿐이다. 이른바 **편향된 통계의 오류**가 저질러진다. 성공한 실험을 만들기 위해 희생되는 수많은 동물의 마릿수도 계산해야 한다.

둘째, 일부러 해악을 끼치는 행위(action)는 막을 수 있는 해악을 막지 않는 무위(omission)보다 훨씬 나쁘다는 것이 상식이다. 예를 들어 아이를 욕지로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할 수 있는데도 못 본 체해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훨씬 비난 받는다. 전자의 경우에는 도덕적인 비난 외에 법적인 처벌도 받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도덕적인 비난도 전자의 경우보다 약하고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없는 이상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는다.¹⁸⁾ 심지어는 지나가는 아이를 이유 없이 때리는 것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동물 실험의 경우 실험을 통해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과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을 때 인간이 받을 고통을 비교해 보자. 실험자가 동물에 주는 고통은 일부러 해악을 끼치는 것이지만, 만약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해악은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은 해악일 뿐이다. 인간의 경우에는 구할 수 있는 아이를 구하지 않은 행위보다 아이를 때리는 행위를 더 심하게 비난하면서, 동물의 경우에는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지 않은 행위보다 극심한 고통을 주거나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때리는 정도가 아니라—를 더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익을 평등하게

18) 싱어(2013), 8장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의무와 관련해서 행위와 무위의 도덕적 구분은 없다고 주장한다. 행위와 무위의 구분에 의해 동물 실험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오는 확실성과 가능성의 비교 계산에 대해서는 LaFollette & Shanks(1996), 251-5쪽을 보라. 흥미 있게도 싱어는 이 고려 사항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의무와 관련해서 모두 극복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중 잣대이다. 따라서 인간의 도덕적 가치가 동물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동물이 받는 고통은 인간이 받을 고통보다 훨씬 가중치를 두어 계산해야 한다. 물론 행위와 무위가 구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서 막을 수 있는 해악, 예컨대 자신에게 큰 손해를 끼치지 않는 기부로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않은 기아자들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실험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인 데 비해 거기서 생기는 인간의 이득은 단지 가상의 불확실한 것일 뿐이다. 이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차이는 이중의 것인데, 동물에 가해지는 고통은 확실하게 현재 일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통이 일어나는 개체를 확정할 수 있는 데 반해, 가상의 이득은 개연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볼 사람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숲 속에 있는 새 두 마리보다 낫다는 속담처럼 확실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래의 더 큰 이득을 기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이득을 얻을 확률을 계산해 볼 때 현재의 이득보다 크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금 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조그만 기다리면 십만 원을 받을 확률이 20%라고 할 때에나 지금 받을 돈을 포기할 수 있다.

이제 숨은 전제 3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숨은 전제 4) 어떤 동물 실험은 인간에게 사소하지 않은 이익이 되고 그 이익은 동물의 상당한 고통을 능가해야 한다.

인간의 사소하지 않은 이익과 동물의 상당한 고통을 비교할 때는 고통을 받는 개체 수, 행위와 무위의 구분에 따른 가중치,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구분에 따른 가중치를 계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할 때 아무리 인간에게 사소하지 않은 이익을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물

실험이 정당화될지 장담할 수 없다. 동물 실험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실험을 통해 생기는 인간의 이익이 희생되는 수많은 동물들, 동물에 대한 해악의 고의성, 동물의 확실한 고통을 능가할 만큼 상당히 중요한 것 이어야 한다.

(3) [대안 부재 전제] 확실하고 믿을 만한 동물 실험의 대안이 없다

위에서 동물 실험을 하거나 하지 않는 두 가지 대안 외에 제3의 대안이 가능하다면 이익 전제는 거짓 딜레마에 빠진다는 비판이 가능했다. 사람도 동물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대체 실험을 찾아야 하는데, 동물 개체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배양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거나, 컴퓨터 모의실험을 하는 것이 그런 대안이다. 그러나 동물 실험 옹호자들은 그런 대체 실험이 효과를 보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확실하거나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연구자들은 새로운 백신이나 약품이 유기체의 신체 기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어 하는데, 조직 배양이나 컴퓨터 모의실험으로는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이나 동물의 몸은 생물학적인 부분을 단순히 모아 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유기체’, 곧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되고 조직되어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가지는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옹호론자는 여기서 반대론자가 합성의 오류를 저지른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따로 떨어진 조직만 관찰해서 분리되지 않고 복잡한 인간의 생물학적인 특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분을 합하면 전체가 된다는 합성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 바늘 하나를 떨어뜨려서는 소리가 안 나지만 바늘 한 썩을 떨어뜨리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대체 실험에서는 없던 부작용이 유기체 전체에서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대체 실험이 아예 불가능한 실험도 있다. 심장이 뛰거나 관절이 있는 동물에서 실험을 해야 하는 실험은 그런 것을 실제로 구현할 수 없는 조직이나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대체 실험은 동물

실험의 대안은 되지 못하고 동물 실험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옹호자들은 동물 실험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들은 확실하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주장했다. 조직 배양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는 온전하고 유기체인 신체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물 실험의 대안이라고 말할 때는 조직 배양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러셀과 버치가 도입한 3R, 곧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정교화(refinement) 중 대체에만 해당한다.¹⁹⁾ 대체는 위 방법들 말고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나 덜 느끼는 동물이나 오히려 인간 자원자를 실험 대상으로 쓰는 것도 포함된다. 교육에서는 생체 해부보다는 컴퓨터 등의 시청각 교재가 널리 쓰이고 있다. 감소는 실험동물의 마릿수를 줄이는 엄격하고 우수한 통계 기술을 이용하여 꼭 필요한 만큼의 동물만을 실험하고, 유사한 실험을 사전에 조사하여 불필요한 반복을 막는 것을 말한다. 정교화는 실험동물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 동물을 실험 환경에 적응시키거나 마취·진통제를 적절하게 사용한다거나 사육이나 관리 환경을 개선하거나 인도적으로 종료하는 것 등이 예가 되겠다. 이러한 것들은 이익 전제의 숨은 전제 4에서 인간의 (사소하지 않은) 이익과 동물의 (상당한) 고통을 비교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미 거론된 것이다.

대안을 찾는 노력을 꾸준히 할수록 효율적인 대안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대안에 대한 회의론은 신뢰성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피하게 만든다. 위에서 동물 실험 옹호자들은 동물 실험은 의학 발전의 충분조건일 뿐만 아니라 필요조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정말로 동물 실험이 없었으면 지금과 같은 의학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을까? 동물 실험 반대자들은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공중위생 학자들에 따르면 인간 생명의 연장은 환경 개선과 개인위생의 변화에 힘입은 바가 크지 의학적인 개입은 미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동물 실험 때문에 다른 가능한 연구의 기회를 막았을 가

19) Russell&Burch(1959).

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다. 옹호론자인 코헨은 동물 실험 때문에 소아마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의학당 연구에 따르면 초기 소아마비 연구자들은 붉은원숭이에만 연구를 집중하여 치료법 발견이 25년이나 늦어졌다.²⁰⁾ 동물 실험이 의학의 발전을 오히려 막은 사례는 그 외에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의 연구, 에이즈 백신의 연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런 사례들로부터 동물 실험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의학의 발전은 불가능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반대자들은 주장한다. 노비스가 주장하듯이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할 역사적 연구가 훨씬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²¹⁾

4. 맺는말

지금까지 동물 실험 옹호론자와 반대론자가 동물 실험의 윤리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에서 어떤 논증을 사용하고 어떤 논리적·수사적 전략을 사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양 진영은 감정적 용어, 반대 사례 방법, 유비 논증, 공포심에 호소하는 논증, 피장파장 논법, 선언적 삼단 논법, 숨은 전제 찾기 등의 논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애매어의 오류, 딜레마, 이중 잣대, 거짓 딜레마, 편향된 통계의 오류, 합성의 오류 등의 잘못을 저지른다고 비판한다.

동물 실험 옹호 논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들의 참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검토한 것처럼 그 전제들은 거짓이거나 거짓은 아니더라도 참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형태의 동물 실험 옹호 논증은 성공하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논증과 오류는 기초 논리학에서 가르쳐지는 것들이다. 그 말은 옹호론의 주장은 특정 윤리 이론을 전제하

20) LaFollette&Shanks(1996), 127-8쪽.

21) Nobis(2012), 254쪽.

지 않고서도 기본적인 논리적 분석 방법만으로 반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동물 실험을 성공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 반대 논증이 성립한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동물 실험 논쟁에서는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관행을 옹호하는 동물 실험 옹호 논증에 입증의 책임이 있으므로, 그 옹호론이 입증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동물 실험 비판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²²⁾

22) 입증의 책임에 대해서는 최훈(2012), V장을 보라.

참고문헌

- 김명식, 「동물 실험과 심의」, 『철학』 92(2007), 231-56.
- 그릭, 레이·진 스윙글 그릭(2005), 『탐욕과 오만의 동물실험』, 다른세상.
- 그릭, 레이·진 스윙글 그릭(2006), 『가면을 쓴 과학 동물실험』, 다른세상.
- 싱어, 피터, 『동물해방』(개정완역판), 김성한 옮김, 인간사랑, 2012.
- 싱어, 피터, 『실천윤리학』(3판), 황경식·김성동 옮김, 인간사랑, 2013.
- 추정완·최경석·권복규 (2007), 「동물권 옹호론과 영장류 실험에 대한 윤리적 검토」, 『한국생명윤리학회지』, 8 (1): 41-52.
- 최훈 (2004), 「복수 실현의 딜레마들」, 『철학연구』 67: 139-163.
- 최훈 (2009), 「영장류 실험의 윤리와 가장자리 상황 논증」, 『과학철학』, 12 (1), 125-153.
- 최훈 (2011),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종 차별주의」, 『인간·환경·미래』, 6: 87-111.
- 최훈 (2012), 『좋은 논증을 위한 오류 이론 연구』, 사회평론.
- 최훈 (2013), 「간접적 도덕적 지위 이론 비판」, 『철학연구』, 102: 219-244.
- 코피, 어빙·칼 코헨 (2000), 『논리학입문』 (제10판), 경문사.
- American Medical Association(AMA), *Statement on the Use of Animals in Biomedical Research* (revised), Chicago: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92.
- Cohen, Carl and Tom Regan, *The Animal Rights Debate*, Rowman & Littlefield, 2001.
- DeGrazia, David (2002), *Animal Rights: A Very Short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rey, R. G. (1983), *Rights, Killing and Suffering*, Oxford: Basil Blackwell.
- Frey, R. G. (2002), “Justifying Animal Experimentation,” *Society* 39 (6): 37-47.
- LaFollette, Hugh and Nail Shanks, *Brute Science: Dilemmas of Animal Experimentation*, Routledge, 1996.
- Nobis, Nathan (2012), “Rational Engagement, Emotional Response, and the

- Prospects for Moral Progress in Animal Use ‘Debates’,” in Jeremy R. Garrett, *The Ethics of Animal Research: Exploring the Controversy*, The MIT Press: 237-265.
- Perlo, Katherine, “‘Would You Let Your Child Die Rather Than Experiment on Nonhuman Animals?’ A Comparative Questions Approach,” *Society & Animals* 11(1)(2003), 51-67.
- Regan, Tom, *The Case for Animal Rights*, second edition, Berkeley &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 Regan, Tom (2012), “Animal Rights Advocacy and Modern Medicine: The Charge of Hypocrisy,” in Jeremy R. Garrett, *The Ethics of Animal Research: Exploring the Controversy*, The MIT Press: 267-291.
- Russell, W. M. S. and R. L. Burch, *The Principles of Humane Experimental Technique*, London: Methuen, 1959.

A Logical Analysis of the Arguments for Animal Experimentation

Choi, Hoon (Kangwon Univ.)

This paper aims to analyze which arguments are used and which logical and rhetorical methods are employed in criticizing each other by proponents and opponents in animal experimentation debates. I look into the premises and argumentative strategies presented to support animal experimentation. Several argumentations and fallacies are pointed out in those processes. Finally I conclude that the arguments backing up animal experimentation are unsound which have false premises, and it is difficult to deduce the conclusion from those premises even though they are true.

Key words: animal experimentation, argument, fallacy, argument for animal experimentation, similarity, benefit, no alternative

최 훈 e-mail: choih@kangwon.ac.kr

투 고 일	2013년 10월 04일
심 사 일	2013년 11월 01일
게재확정	2013년 11월 13일